

중국 이어 E7 · TVT 부상 주목하라!

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세계경제 양극화 ... 기후변화 위기에 웹2.0도

중국의 문화 제국주의 부활, 미국 대외정책의 실용주의 강화, 경제 양극화 심화 등이 2007년 국제사회에 나타날 주요 흐름으로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월26일 <2007년 9대 트렌드 예측>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적인 흐름으로 정치경제, 거시경제, 산업, 금융, 지역,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9가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Economist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9대 흐름에 대응해 통상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국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문화 육성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내기업들도 금융부문과 기후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고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문화 제국주의 부활: 중국이 영상물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해 미국, 영국 등 전세계에 문화상품 수출을 늘리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 실용주의 강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상론보다는 현실이익 확대를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미국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 심화: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등 기업의 경영전략 전환과 지식산업 위주의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간 또는 근로자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부의 대물림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기후변동 경제학 부상: 엘니노 현상과 같은 기후변동 현상이 음료, 식품, 건강, 환경 등을 위협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다.

▲다른 업종간 대규모 인수합병(M&A):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간 대규모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등 거대 인수합병(Mega Merger)이 확산될 것이다.

▲웹 2.0의 진화와 롱테일 경제: 정보의 상호교환이 가능한 웹 2.0 확산으로 개별고객이 중시되는 롱테일 경제가 새롭게 부각하고 완전 쌍방향형 교류가 가능해지는 웹 3.0시대도 5-10년 이내에 도래할 것이다. 롱테일 경제는 틈새상품들이 히트상품과 더불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금융의 불균형 심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006년 10월 1조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향후 국제금융과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TVT 및 E7 부상: TVT(터키·베트남·타이), E7(브라질·러시아·인디아·중국·인도네시아·멕시코·터키) 등이 빠른 경제성장과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BRICs(브라질·러시아·인디아·중국)로 부상할 것이다.

▲아시아 교육시장 황금시장으로 부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육투자를 늘리면서 아시아권의 교육시장이 21세기 황금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8>